

1박 2일 **통일**
금강산기행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을 대표해서 우리는 1박 2일의 꿈같은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 금강산은 '등산은 힘들 뿐'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말끔히 씻어줬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있던 힘이 솟아났을 정도. 우리는 6월 27일 저녁에 부산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28일 금강산에 도착했다. 관광 첫째 날엔 구룡폭포까지 등반하고, 금강산 교예단 공연을 봤고, 둘째 날에는 아름다운 해금강과 삼일포 풍경을 만끽하고 금강산 온천에서 시원한 목욕을 즐겼다. 무릉도원을 다녀온 것처럼 꿈 같았던 금강산 관광을 소개한다. -역은이 / 이견준·노민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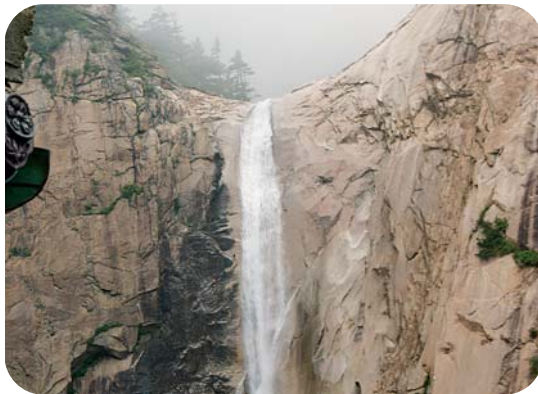
금강산에서 통일 **4** 을 외치다!



노민규(좌), 이견준(우)

꿈에서나 볼 법한 구룡폭포!

목란관에서 비룡폭포, 금강문을 지나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구룡폭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폭포 맞은편 정자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었다. 반찬은 간소했지만 맛은 말 그대로 '꿀 맛'.



기자단 금강산 가다!

부산에서 27일 밤 10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해 아침 8시쯤 남측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했다. 북측 출입국 사무소로 가는 길에 비무장 지대에서 옛 3·8선 경계 말뚝을 봤다. 그걸 보며 '통일이 되면 내손으로 저걸 뽑아내야지' 하는 결심을 했다. 수속을 끝내고 금강산의 베이스캠프인 '온정각'에 도착!



남쪽에선 못 본다, 금강산 교예단

금강산 교예단 공연은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동작 때문에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었다. 공연은 선녀가 내려오는 신비로운 광경으로 시작했다. 중간엔 세계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던 철봉재주 묘기가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공연은 공중돌기 재주를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끝났다. 관객들은 당연히 기립박수!



북측안내원 인터뷰

“북측 청소년들도 통일에 관심 많아요”

구룡폭포로 올라가는 길에 북측 안내원과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북측 청소년들도 통일에 관심이 많은가”하고 물어보자 “북측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 북쪽에서는 청소년들에게 6.15공동선언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한

다”고 대답했다. 북측 안내원이 남측 학생인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반겨서인지 이야기는 훌쩍 20분을 넘겼다. 덕분에 구룡폭포 정자에서의 점심은 맨 꿀찌로 먹었다는.

이견준 기자
kyun1232@hanmail.net



남+북=유기농 음식!

저녁은 북측에서 운영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먹었다. 식사로 나오는 오이무침과 두부요리는 남측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노동력이 더해진 합동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 유기농에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은 북측 음식은 너무 맛있었다.

금강산 관광 백배 즐기기

금강산관광도 식(識)후경

* 금강산에 가려면

북측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북신청 및 방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방북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현대아산의 일괄적인 관광신청·승인(관광증 발급)의 간소화된 절차로 관광이 가능하다.

본인의 자가용을 타고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지난 3월 17일 '금강산 승용차 관광'이 시작되어 매일 최대 20대의 자가용이 출입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금강산에서 배가 고플 땐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측 식당들은 온정리에 있는 평양냉면을 주로 하는 옥류관, 금강산호텔 별관에 흑돼지 코스요리와 단고기를 하는 금강원과 호텔 2층에 있는 한식당, 구룡연계곡 입구에 있는 목란관 등이 있다. 간이주점을 겸해 간단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삼일포의 단풍관, 외금강호텔 앞의 온정봉사소, 금강산호텔 2층의 민족식

당 등이 있다.

* 금강산에 간다면 이것쯤은

금강산 교예단의 교예공연이 있다. 금강산 교예단은 1999년부터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여러 종목으로 하루에 2~3차례 공연을 하고 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묘기는 금강산 관광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0도의 천연온천수를 사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금강산온천을 즐길 수도 있다.

<참조> 통일부

차나래 기자
naraetou@hanmail.net